

# 미국에서 본 수의학(1)

김 현 영  
(재미 한인수의사회장)

Pennsylvania 주정부 수의연구소 Virology Dept.과장  
Enola Animal Clinic개인병원장

1983년 미국 연방정부 노동성(U. S. Dept of Labor)에서 출판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의하면 수의사(Doctor of Veterinary Medicin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6,000명의 수의사가 있으며, 대부분이 임상에 종사하는 개업수의사들이며,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2,550명 군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600여명 그리고 그 외 회사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수의교육 년한은 D. V. M. (어떤 대학에서는 VMD 학위를 수여함)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수의과대학 본과는 다 4년 과정이나 수의과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의예과를 최소 3년을 요구하는 학교와 2년을 요구하는 두 종류의 수의과대학이 있으며, 그러나 거의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야 수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8년제 수의과대학이지만 수의예과에서 수의과대학 본과에 들어가기 힘들어 상당수의 수의과대학 입학생 중에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갖춘 학생들도 있다고 하였다.

현재 미국 수의사 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서 인준한(Accredited) 수의과 대학은 22개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과 미국에 교육제도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미국 대학은 정부 당국에서 인준한 것 보다는 전문

협회 즉 수의사의 경우는 수의사 협회인 AVMA에서 인준 받은 수의과 대학을 거꾸로 정부가 인준하는 것이다.

미국 AVMA에서는 매 4년마다 수의과대학을 심사한 후 Accrediation을 주게 된다. 따라서 수의사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각 주 정부 단위로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이에 자격을 보면, AVMA에서 Accredited된 수의과대학 졸업생 혹은 외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ECFVG 합격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부에서 인가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AVMA에서 인준 못 받은 대학이라면, 시험 볼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수의과대학을 하나 세울때는 AVMA에서 기준한 시설, 교수문제 그리고 인력문제 등을 다 합격하여야 하니깐 정부에서 인가 받은 것 보다 훨씬 힘들 것이며, 동시에 수의과대학들의 시설이나 교수문제가 얼마나 잘되어 가고 있을가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직업 전망(Job Outlook)은 1980년대(1990년까지)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포함) 평균에 비하면 월등히 전망이 좋다고 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주로 애완동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경제적 동물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등에 증가 그리고 Public Health 등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고 설명되어 있다. 수입은 개업수의사의 경우 총수입(Gross Income)은 평균 \$100,000/Year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입은 다양하다고 하였다. (8%에 해당하는 수의사는 년 총수입이 \$200,000이상임)

또한 재미있는 현상은 과거 10년 동안 급속히 여자 수의사가 늘어 현재 미국 각 수의과대학 재학생 중에는 여성이 절반을 넘는 현상이다. (이는 의과대학도 같은 현상이다.) 이상에 열거한 내용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그 신용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미국 역사 자체가 200년 밖에 안된 어린 국가이지만 수의학이 비교적으로 다른 학문에 비하여 그렇게도 크게 발전하였으며, 수의사의 직업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사회적으로 고귀하게 인정받는 전문직으로 발돋움 한 것은 아마도 다른 전문직에서 할 수 없는 고귀한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Art of Life"을 다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 겸하여 자본국가인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수입 또한 무시 못 할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대동물 중심으로 임상을 하는 것 처럼 미국에서도 30년전만 하여도 대동물 중심으로 임상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Ironical하게도 경제적인 대동물 보다는 애완용 동물(말 포함)에 더 많은 학문이 발전되며, 수입면에서도 애완용 동물 계통이 더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동물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지불할려는 액수의 한계가 있지만 자기 가족처럼 사랑스런 애완동물에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지불할려는 액수의 한계가 없거나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애완용 동물의 Orthopedic Surgery 또는 Neuro-Surgery 같은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경제적 동물에는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리고 비싼 수술은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좋은 적소는 좀 다르겠지만).

현재 미국 동물병원에서는 X-RAY 또는 Blood Chemistry 같은 것은 상식적인 Diagnostic Tool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 사람 임신 감정을 위해 나온 최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기계가 이미 말 임신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사 주간지인 U. S. News and World Report(1983. 9.26)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수가 1972년 당시 60 Millions에서 현재 92 Millions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미국 전체에 있어 절반 이상의 가정이 애완용 동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 미장원에서는 털에 염색까지 하고 있으며, 수의과 병원에서는 눈 이식수술, 뼈와 살의 이식수술, 그리고 심장수술을 한다고 하였으며, Chicago에 있는 개 Hotel에는 주인과 말할 수 있는 전화까지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개의 묘지는 물론 개의 시체를 담은 관이 \$175에 팔리고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있어 애완용 동물에 쓰여지는 돈이 일년에 무려 \$8-Billion이라는 엄청난 액수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불되는 것이 수의과 의료비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수의사의 사회적 Image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미국 수의학에 발전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